

# 카자흐스탄 영화의 저력: 영화 『하모니 레슨스(Уроки гармонии)』<sup>1)</sup> 연구

홍 상 우  
단독 / 경상대학교

## I

2013년도 2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렸던 제 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출품작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작품<sup>2)</sup> 중의 하나는 올해 27살의 카자흐스탄 감독 에미르 바이가진(Эмир Байгазин)<sup>3)</sup>이 연출한 장편 데뷔작 『하모니 레슨스』였다.

### 1) Venu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ompetition)

Production companies: JCS Kazakhfilm, The Post Republic Halle, Rohfilm, Arizona Productions

Cast: Timur Aidarbekov, Aslan Anarbayev, Mukhtar Andassov, Anelya Adilbekova, Beinitzhan Muslimov, Omar Adilov, Adlet Anarbekov, Daulet Anarbekov, Nursultan Nurbergenov, Nurdaulet Orazymbetov, Erasyl Nurzhakyp, Assan Kirkabakov, Ramazan Sultanbek, Bagla Kobenova

Director-screenwriter: Emir Baigazin

Producer: Anna Katchko

Director of photography: Aziz Zhambakiyev

Production designer: Yuliya Levitskaya

Costume designer: Ulan Nugumanov

Editor: Emir Baigazin

Sales: Films Distribution, Paris

No rating, 115 minutes.

2) 이에 대해서는 *Warm Berlin welcome for groundbreaking Kazakh movie*(<http://www.euronews.com/2013/02/15/warm-berlin-welcome-for-groundbreaking-kazakh-movie/>:검색일. 2013.02.15)를 참조하시오.

3) 한편 장편 데뷔 이전부터 에미르 바이가진 감독은 영화 제작에 배우 및 시나리오 작가

장편 데뷔 이전부터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으며 활동해온 에미르 바이가  
진 감독은 결국 이 작품으로 카자흐스탄 영화 역사4)상 처음으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으로 참여하면서 이미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으며, 차세대 카자흐스탄  
영화의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그는 2007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젊은 아시아 영화인들  
을 위해서 개최하는 아시아필름아카데미(AFM)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영화 이력은 다음과 같다.

PHILMOGRAPHY:

1. DAY WATCH / 2004/ Main role of young Tamerlan in historical prologue  
Russian blockbuster by director T. Bekmambetov (“Gladiatrix”, “Night  
Watch”, “Wanted”)
  2. JOLLY AND RESENTFUL / 2006/ Scriptwriter, Director, Camera
    - ✓ «Best Direction» Award in National Student Film Festival “Didar”i (Kazakhstan)/  
2007
    - ✓ Participant in “Deboshir”Film Festival (Russia)/2007
  3. STEPPE /2007/ Scriptwriter, Director, Camera
    - ✓ Participant of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haken’ Stars”(Kazakhstan)/2007
    - ✓ Selected for Asian Film Academy (Pusan, Korea)/ 2007
    - ✓ Selected for Berlinale Talent Campus (Germany)/2008
  4. VIRGINS /2007/ Scriptwriter, one of 5 Directors (Pusan, Korea)
  5. FATSHEDDER/2008/ Scriptwriter, Director
    - ✓ Grand Prix and “best Audience”Award in National Student Film Festival  
“Didar”i(Kazakhstan)/2008
    - ✓ Special Prize 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haken’ stars”(Kazakhstan)/2008
    - ✓ Special Prize of CIS International Youth Jury in Central Asia Film Festival  
“EuroAsia”(Kazakhstan)/2008
    - ✓ Award “MENTION D’HONNEUR”in 26th Milano International FICTS Film  
Festival(Italy)/2008
    - ✓ Special Prize of Central Asia art - house film festival “Kinostan”
    - ✓ Participant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program in 5th “Sedicicorto”Forli film  
festival (Italy)/ 2008
    - ✓ Participant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program in 28th VGIK film festival  
(Russia)/ 2008
  6. ZHAN’ VIDEODIARY/2009/ Scriptwriter, Director
    - ✓ Kazakh award “hastar - 2009”in nomination “Best debut”(http://webfiles.  
pardo.ch/perm/3106/907/OC445660\_P3106\_135907.pdf: 검색일. 2013.02.15)
- 4)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영화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며, 영화 미학적인  
면에서도 약 20년 전 부터 소위 ‘카자흐스탄 뉴 웨이브’라는 칭호를 얻으면서 해외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카자흐스탄 뉴 웨이브’의 대표적인 감독인 다레잔 오미르바예프  
(Дарежан Омирбаев)는 2012년도에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현대 카자흐스탄  
사회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스튜던트(Студент)』로 칸느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진출하였다.

주요 경쟁 부문에 진출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촬영감독인 아지즈 잠바키예프(Азиз Жамбакиев)가 은곰상인 예술 공헌상(AWARD FOR AN OUTSTANDING ARTISTIC CONTRIBUTION IN THE CATEGORIES CAMERA, EDITING, MUSIC SCORE, COSTUME DESIGN or SET DESIGN (Silver Bear))을 받았다.<sup>5)</sup> 특히 에미르 감독이 데뷔작으로 바로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sup>6)</sup>

이 작품의 수상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미학적 성취는 빼어난 화면 구성과 카메라의 묘사력이다. 또한 성장기 소년의 내면과 폭력에 물든 카자흐스탄 사회에 대한 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화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쇄사슬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폭력의 잔혹성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결국 이 영화는 그러한 사회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가 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 II

### 1.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 치밀한 프레임 구성

소연방 붕괴 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영화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가족 구성원의 부재이다.<sup>7)</sup> 이 영화의 주인공 아슬란(Аслан) 역시 일찍이 엄마를

5) [http://www.berlinale.de/en/das\\_festival/preise\\_und\\_juries/preise\\_internationale\\_jury/index.html](http://www.berlinale.de/en/das_festival/preise_und_juries/preise_internationale_jury/index.html)(검색일:2012.02.15)

6) 이에 대해서는 *Kazakhstan's Harmony Lessons receives positive feedback at Berlinale* ([http://en.tengrinews.kz/cinema\\_and\\_music/Kazakhstans-Harmony-Lessons-receives-positive-feedback-at-Berlinale-17030/](http://en.tengrinews.kz/cinema_and_music/Kazakhstans-Harmony-Lessons-receives-positive-feedback-at-Berlinale-17030/); 검색일. 2013.02.15)를 참조하시오.

7) 카자흐스탄 영화사에서 ‘가족’의 테마는 소연방 시절 ‘해빙기’ 이래 지속되어 왔는데, 1998년부터 중앙아시아 영화에서 긍정적인 가치의 설정, 가족 형성 과정, 그리고 사회 안정을 묘사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러한 예는 세리크 아프르이모프(Серик Апрымов)의 『악수아트(Аксуат)』(1998)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영화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독립 이후 15년간 이곳에서 영화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역사 블록버스터인 『유목민(Кочевник)』(2005)이 제작되었는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영화에서 대상을 묘사하는 카메라는 대상을 쫓아 가지 않는 대신, 공간을 포괄한다. 즉 인물과 묘사 대상이 프레임 안과 밖을 왕복하는 것이다. 영화가 시작되면, 카메라는 푸른 눈을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다. 밝은 하늘과 녹색의 눈, 그리고 검은 색의 주인공 뒷모습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화면은 하늘과 눈으로 상하 양분되고, 주인공은 그 사이에서 좌우로 화면을 나누고 있다. 이 미장센은 빛과 어둠이라는 태초의 영화 언어와 HD 카메라가 묘사하는 날카로운 색채 묘사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상하로 양분 되는 프레임 구조는 영화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 바로 이어서 카메라는 방안에 누워 있는 주인공을 방 입구 밖에서 비추는데, 이 때 문의 역할을 하는 커튼이 반쯤 내려져 있어서 역시 화면은 최초 프레임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프레임은 최초 프레임보다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는데, 프레임이 상하로 분리될 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주인공과 ‘이쪽’에 있는 카메라로 인해 프레임의 공간 자체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하로 분리되는 프레임의 절정은 아슬란이 도시에서 온 친구 미르사얀(Мирсаян)과 함께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이다. 감옥 안의 침대에 누워 있는 두 사람은 같이 누명을 쓰고 있지만, 서로가 처한 입장과 살아온 세계가 다르다는 점을 카메라는 상하로 예리하게 분리된 프레임 구성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사진.1)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래층의 아슬란은 엎드려 누워 있고, 위층의 미르사얀은 천장을 향해 누워 있다. 이들은 살인 누명을 쓰고 상대방의 혐의를 자백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즉 서로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이들의 선하고 맑은 영혼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이들은 상대방의 살인 혐의를 허위 자백해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

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영화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경향의 영화가 등장했다는 것은 많은 발전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영화는 세계 영화사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다. 개별 프로듀서들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스튜디오들이 국영 스튜디오인 ‘카자흐필름(Казахфильм)’에 필적할 정도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이 스튜디오에서 서구의 저명 프로듀서들과 공동으로 『튤립(Тюльпан)』(2008), 『몽골(Монгол)』(2007), 그리고 『근접 격투(Ближний Бой)』(2007)과 같은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이하 카자흐스탄의 영화사에 대해서는 홍상우, 『중앙아시아 영화를 보다』, 경성대 출판부, 2012, pp.45-53을 참조하시오.

카메라와 인물이 모두 움직이지 않는 이 프레임이야 말로 움직이지 않는 외형에 역동적 내면을 담아내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일 것이다.



사진.1

한편 주인공 아슬란이 폭력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신체적으로 허약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망은 신체검사에서 의사가 요구했던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영화 초반부에 아슬란이 모욕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이 신체검사에서, 의사는 아슬란에게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 양쪽 팔을 얼굴을 향해 움직여보라고 지시한다. 이후 아슬란은 거울 앞에서 이 동작을 반복한다. 사진.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카메라는 이 동작을 거울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여전히 정적인 이 프레임 구조에서 우선 시선의 문제가 제기된다. 거울 속의 아슬란의 모습은 아슬란이 원하는 모습이며, 바로 그러한 아슬란의 욕망을 카메라는 거울을 통해 관객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카메라의 시선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 관객의 시선을 거울을 통하여 확장시키고 있으며, 아슬란이 자기만의 폐쇄적인 세계에 갇혀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거울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커튼은 아슬란이 자기만의 폐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열린 세상으로 나갈 출구가 있다는 점을 묘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단순한 구성으로써 카메라는 프레임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사진. 2에서 살짝 보이는 격자 형태의 창문은 영화 전체에 걸쳐서 아슬란의 주변에 존재한다. 문, 격자, 창문의 이미지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폐쇄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주인공이 운명적 전환을 맞이할 때에도 강조되는 이미지이다. 카메라는 아슬란이 마당에 있을 때조차도 그의 주위에 사각형으로 된 나무 설치물을 나란히 배치하여 강조함으로써 아슬란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임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아슬란이 학교에 있을 때 카메라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문턱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슬란이 살인 누명을 썼을 때 문턱에 대한 카메라의 그러한 강조가 분명한 의미를 획득한다. 아슬란이 선생님과 함께 형사를 만나러 갈 때, 평소에는 단순한 시설물로 여겨지던 이 문턱이 아슬란이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운명적 변화를 예고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카메라는 앞서 가고 있는 선생님 앞에서 인물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아슬란이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의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앞서가는 선생님의 구두 소리와 말없이 그녀를 따라가고 있는 아슬란의 형상<sup>8)</sup>은 효과음과 사운드 트랙을 배제한 상태에서도 인물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가 쇼트 내부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이야말로 말로 에이젠슈타인이 강조했던 프레임 내부에서 형상과 소리의 충돌적 조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의 주제인 폭력의 문제 역시 카메라의 탁월한 묘사력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사진. 3은 아슬란과 미르사안이 살인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는 장면이다. 이 때 프레임의 배경이 되는 하얀 벽에 미르사안이 손이 묶인 채 매달려 있고, 아슬란은 팔을 뻗어 무거운 책을 들고 있어야 하는 고문을 당한다. 외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혐의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이러한 잔인한 고문 방식을 나타내는 프레임은 의미적으로 매우 복잡적이다. 우선 주인공들이 평소에 살고 있었던

8) 이 영화에 대한 각종 리뷰 중 일부는 중앙아시아 소년들의 외모에서 풍기는 독특한 이미지도 이 영화의 시각적 효과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Kazakh writer-director Emir Baigazin's poetic drama of a marginalized teenage boy ha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first feature selected for Berlin's official competition.* (<http://www.hollywoodreporter.com/review/harmony-lessons-berlin-review-421622>. 검색일:2013.02.15)를 참조하시오.



사진. 2

세계인 학교가 폭력에 몰들어 있는 작은 세계에 불과했다면, 학교 밖의 사회 전체가 제도적 폭력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이 프레임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 프레임 내부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책의 형상은 학교가 그러한 폭력에 대항할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이다. 책이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비극적인 프레임은 영화 전체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sup>9)</sup>

영화 미학적으로 가장 완성도 있는 장면은 아마도 최초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일 것이다.<sup>10)</sup> 영화의 마지막 프레임은 최초 프레임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장면은 푸른 논이었지만, 마지막 장면은 인물들 사이에 강이 흐르고 있다. 아슬란이 있는 이쪽과, 죽은 블라트와 도시에서 온 같은 피해자 친구인 미르사얀이 저쪽 편에서 아슬란을 이리 오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강물 위를 영화 초반부에 죽었던 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는 환상적인 장면이 되었다. 죽은 존재가 생명의 물 위를 달려가는 이미지<sup>11)</sup>를 담고 있는 이 프레임은 폭력이 지배하는

9) 영화가 제기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감독은 “그러한 폭력이 실제 자신의 성장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학교란 부모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소년들의 소유주이고, 그것은 공식적인 학교 체제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2013.02.14. 11:20. 베를린국제영화제 프레스 센터. 언론 시사 후 기자회견).

10) 유감스럽게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 시점(2013.02.14)에서 이 장면 사진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 불가능하다.

세상을 죽음으로써 벗어난 인물과 혹독한 폭력에 시달렸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인물을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진.3

그러나 ‘저쪽’에 있는 인물들이 ‘이쪽’에 있는 아슬란을 부르는 외침으로 인해 여전히 삶과 죽음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으며, 프레임은 그 연결을 시각적 형상으로 써가 아니라 청각으로써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프레임은 시각적 몽타주와 청각적 몽타주가 혼합된 영화 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가 매우 적절하게 사용된 사례이다. 또한 이 순간 카메라는 주인공인 아슬란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는다. 도시에서 온 동료인 미르사얀과 폭력을 행사하다 살해당한 블라트가 강 저편에서 아슬란을 향해 오라고 외치고 있고, 카메라는 아슬란의 뒷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가시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장면이지만, 동시에 비가시적인 것을 적절하게 상용하여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이 프레임들은 영화 전체에 걸쳐서 격자 모양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아슬란이 열린 공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을 강조하는 드문 예이기도 하다.

## 2. 폭력으로 물든 세계: 그곳에서 살아남기

영화의 공간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아슬란의 집이 있는 카자흐스탄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세계, 그리고 폭력이 지배하는 학교와 경찰서이다. 이렇게 폭력이

---

11) 영화사에서 이러한 물 위를 달러가는 존재의 이미지가 강조된 대표적인 작품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이반의 어린시절』의 마지막 장면이다.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슬란이 살아남는 방식은 자기 몸을 씻는 것, 그리고 정교함과 조화의 추구이다. 그는 틈만 나면 몸을 씻고, 학교 수업도 기계 공학이나 생물 등 정교함과 조화가 강조되는 과목을 선호한다. 영화 초반부에 카메라가 눈 덮인 카자흐스탄의 어느 시골집을 비추고, 주인공 아슬란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서 손을 씻는 장면은 이러한 그의 성향을 예견하는 것이다.<sup>12)</sup>

영화에서 명시적으로 강조되는 죽음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영화 초반부에 아슬란이 양을 죽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교 폭력을 주도하던 볼라트의 죽음이다. 그러나 아슬란이 양을 잡는 장면은 지나칠 정도로 세부적인 반면, 볼라트의 살해 장면은 묘사되지 않는다. 단지 그가 죽은 사진이 제시될 뿐이다. 이 두 가지 죽음은 의미상으로 다른 층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죽음인 양의 죽음은 죽음 자체보다는 ‘살아남기’에 해당한다.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양이 지니는 의미는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슬란이 양을 잡기 위해 마당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영화에서 드물게 희극적인 것이다. 또한 아슬란이 양을 잡아 해체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기도 하며, 양의 신체 및 가족을 해부하여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장면은 마치 일종의 의식을 치루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에 감독은 양의 죽음을 통하여 우선 생존의 필요성<sup>13)</sup>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의 목을 칼로 찢러 피를 흘리게 하는 장면을 아슬란의 자살 시도 방식과 동일한 이미지로 처리함으로써 아슬란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죽음의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한다. 영화 초반부 아슬란의 행위 형상이 후반부에 반복되는 것은 그가 전기로 물고기를 잡는 형상에도 해당된다. 그가 강의 얼음을 깨고 전기로 물고기를 잡은 후, 카메라는 전기에 감전되어 얼음 위에 죽어 있는 물고기들을 클로즈업하는데, 이 형상은 후반부에 주인공이 꿈에서 전기 고문을 당하는 형상으로 변형된다. 또한 약자인 아슬란은 바퀴벌레를 잡은 후, 전기를 연결한 철사 끝에

12) 감독은 “영화의 많은 숏이 주인공의 내면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의 기자회견.

13) 언론 시사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독은 “폭력으로 인한 죽음 보다는 살아남는 것을 묘사하고 싶었으며, 삶에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싶지 않았다. 삶은 지나가지만 경험은 남는다. 그래서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같은 기자회견.

설탕을 문혀놓고, 바퀴벌레가 그 지점에 도달하면 전기에 감전되어 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철사로 된 작은 의자 모양의 집개에 바퀴벌레를 묶어 놓고 조이거나 전기를 흐르게 하여 바퀴벌레가 감전되도록 한다. 이 시퀀스는 의미심장하다. 후에 아슬란이 전기 고문을 받는 쇼트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진 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쇼트 혹은 시퀀스는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하나도 단순하게 지나치게 되는 장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연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촬영 감독의 뛰어난 프레임 구성 능력이 돋보이는 것이다.



사진.4



사진.5

이후 주인공이 실제로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이다. 이때 주인공 아슬란과 학내 폭력을 주도하는 볼라트가 등장한다.

의사는 신체가 허약한 아슬란에게 “운동을 하라”고 말한다.<sup>14)</sup> 반면 블라트는 육체적 힘 과시에 집착한다. 그는 내면이 없는 인물이다. 이 때 블라트는 신체검사 받을 때 마시던 더러워진 상태의 물을 그대로 아슬란이 마시도록 하고, 그 장면을 친구들과 훑쳐보고 아슬란을 놀린다. 이때부터 아슬란은 블라트를 볼 때, 또는 유사한 모양의 컵을 볼 때 구토 증세를 보인다.

이러한 폭력에 물든 학교에서 아슬란이 추구하는 자기 보호 방식은 정교하고 조화로운 상태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다. 아슬란은 허약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검사 받을 때 했던 동작을 집에서 반복해서 해본다. 사진 2에서와 같이 그는 거울을 보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할머니는 그가 엄마가 죽은 후 말이 없어졌으며, 틈만 나면 몸을 씻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목걸이를 주면서 항상 목에 걸고 있으라고 한다. 아슬란은 그것을 항상 목에 걸고 다닌다.

그런데 영화에서 폭력은 학교를 넘어서서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한다. 우선 블라트를 비롯한 일행이 학교에서 행하는 폭력이 있고, 그 상부에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블라트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며, 또한 졸업생들 간의 힘의 우월에 따른 폭력도 존재한다. 즉 감옥에 있는 동료에게 줄 것이라고 하면서 블라트에게 금품을 받아가는 졸업생과 그에게 금품을 주지 말라고 블라트를 협박하는 두 형제간의 갈등이 있다. 즉 폭력은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 구조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 학내 폭력의 정점에 있는 두 형제에 대한 묘사도 탁월하다. 쇼트에서 묘사되는 그들의 이미지는 거의 기계 혹은 로봇에 가깝다. 그들이 영화에 처음 등장할 때 프레임에는 철봉이 보이고 그 철봉을 역순으로 회전하는 형제의 긴장한 다리가 먼저 보인다. 두 사람의 동작은 마치 훈련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들이 가공할 폭력을 휘두를 힘을 가진 것이다. 카메라는 이들을 오직 폭력에만 의지할 뿐 내면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영화에서 폭력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에서

14) 한편 서방 언론은 이 영화의 언어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영화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인물이 전문적인 의사이며, 나머지 인물들은 카자흐어를 사용하고 있다. 감독은 “카자흐스탄 시골에서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시내 혹은 대도시에서는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이 영화에서 일종의 다큐멘터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의 기자회견.

묘사되는 폭력의 최상층부에 경찰에 의해서 자행되는 제도적인 폭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를 반영하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폭력에 몰들어 있듯이 사회 전체, 공권력까지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게다가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폭력을 자행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사진. 6

폭력의 가장 하위 수준인 학교에서 블라트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다. 그가 폭력으로 학교를 지배한다는 점은 학생들이 실내 축구 경기를 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학생들은 블라트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그와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려 한다. 폭력에 몰든 학교의 축소판을 실내 축구 경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때 카메라는 블라트가 신고 있는 새 운동화를 유달리 주목하는데, 사실 그 운동화는 이슬란의 유일한 말동무인 체구가 작은 한 학생의 것이었다. 블라트가 그의 다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은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나아가 교사 역시 블라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학교를 지배한다. 블라트가 이슬란의 학급으로 옮겨 왔을 때, 그를 본 이슬란은 구토를 하고, 블라트는 이슬란에게 모욕을 준다. 이 때 교사는 블라트를 제지하지만, 블라트는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슬란을 계속 모욕한다. 이 장면에서 교사의 권위는 여지없이 무너졌으며, 오히려 이슬람교 신자 여학생이 블라트와 같이 앓을 수 없다고 저항한다.

이렇듯 폭력으로 몰든 세계는 당연히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얽혀 있다. 블라트

가 이슬란에 대해 가해자이고 이슬란이 피해자라면, 블라트는 졸업생 선배들과의 관계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다. 그는 결국 선배 형제에게 살해당한다. 또한 주인공 이슬란과 도시에서 온 친구 미르사얀은 블라트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해서도 피해자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렇게 온통 폭력에 물든 세상 자체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영화는 그토록 가혹한 폭력에 물든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성을 궁극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가장 가혹한 폭력에 대항해서 승리한 인물이 바로 이슬란이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설명하는 비폭력의 상징인 간디의 사진은 처음엔 폭력에 물든 학교에 대한 냉소 혹은 조롱으로 느껴지지만, 결국 경찰의 가혹한 폭력에 굴하지 않은 이슬란의 내면과 상통하게 된다.

이슬란과 미르사얀은 블라트의 살인 혐의를 받게 되고, 경찰은 그들에게 살인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각종 고문을 한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을 분리 심문하면서 각자 상대방의 혐의를 자백하라고 유도하는데, 감옥이라는 극단적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경찰의 이러한 거래 제의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슬란이다. 미르사얀은 경찰의 유혹에 흔들리고 이슬란이 살해범이라는 자백을 해야 한다는 유혹에 흔들리지만, 이슬란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의 제의도 거부한다. 경찰의 할머니가 이슬란에게 준 부적 목걸이조차 압수해갈 때 이슬란을 보호할 어떤 존재도 세상에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졸업생 형제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결국 이슬란이 누명을 벗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즉 각종 수준의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허약했던 이슬란이 가장 강한 정신력 혹은 내면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사회에서조차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이슬란이란 인물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 III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감독인 에미르 바이가진의 영화 『하모니 레슨』를 프레임 구조를 통한 묘사의 미학적 효과와 폭력이라는 주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

15) 감독 역시 “영화에서 희망없는 결말은 원치 않았다”고 말한다. 앞의 기사 회견.

있다. 이 영화가 카자흐스탄 영화사에서, 나아가 중앙아시아 영화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 작품이 3대 국제영화제 중의 하나인 베를린국제영화제 장편 경쟁 부문에 처음으로 진출한 카자흐스탄 영화이며, 나아가 수상까지 했다는 사실이 카자흐스탄 영화사에 기록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세계 저명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는 점이 작품의 완성도를 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작품이 적어도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 영역에 진입했으며, 그 와중에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에미르 바이가진 감독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장편 데뷔 이전부터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하모니 레슨』가 오랜 기획 과정을 거친 후에 완성한 영화라는 점은 중앙아시아 영화 전체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학문적 작업일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완성도는 프레임 내부의 뛰어난 묘사력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효과음과 음악이 배제되고, 인물의 동작도 절제된 정적인 프레임은 매우 치밀하게 기획되어 영화 전반부와 후반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전반부에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쇼트들이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하면서 창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감독은 폭력의 잔혹성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선하고 맑은 영혼이 그러한 폭력으로 물든 세계에서 살아남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단순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사회 각 수준에서 예외 없이 존재하는 폭력의 잔혹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러한 폭력에 굴하지 않는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미학적으로 볼 때 감독과 촬영 감독은 기존의 영화 문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충돌보다는 프레임 내부의 충돌 효과를 염두에 둔 장면들을 주인공의 내면 묘사를 위해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프레임 구성은 사실상 매우 정교한 사전 기획이 전제 되어야 한다. 프레임 내부의 충돌이 관객의 지각에 자극을 주어, 정서적 충격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열거한 몇몇 장면들이 이러한 프레임 내부의 충돌 효과를 충분히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화 『하모니 레슨』

스』가 보여주는 이러한 몇 가지 측면의 빼어난 완성도를 감안한다면, 에미르 바이가진 감독이 앞으로 보다 주목되는 카자흐스탄 영화의 차세대 기대주인 것만은 확실하다. 앞으로 그의 후속작들이 꾸준히 일정한 완성도를 유지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주제어

하모니 레슨스, 에미르 바이가진, 카자흐스탄 영화, 중앙아시아영화, 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 ❖ 참 고 문 헌

영화 『하모니 레슨스(Уроки гармонии)』(2013)

영화 『이반의 어린 시절(Иваново детство)』(1963)

*Kazakhstan's Harmony Lessons receives positive feedback at Berlinale* ([http://en.tengrinews.kz/cinema\\_and\\_music/Kazakhstan-Harmony-Lessons-receives-positive-feedback-at-Berlinale-17030/](http://en.tengrinews.kz/cinema_and_music/Kazakhstan-Harmony-Lessons-receives-positive-feedback-at-Berlinale-17030/): 검색일: 2013.02.15)

*Warm Berlin welcome for groundbreaking Kazakh movie*(<http://www.euronews.com/2013/02/15/warm-berlin-welcome-for-groundbreaking-kazakh-movie/> :검색일: 2013.02.15)

*Kazakh writer-director Emir Baigazin's poetic drama of a marginalized teenage boy has the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first feature selected for Berlin's official competition.*(<http://www.hollywoodreporter.com/review/harmony-lessons-berlin-review-421622>. 검색일:2013.02.15)

[http://www.berlinale.de/en/das\\_festival/preise\\_und\\_juries/preise\\_internationale\\_jury/index.html](http://www.berlinale.de/en/das_festival/preise_und_juries/preise_internationale_jury/index.html) (검색일:2012.02.15)

[http://webfiles.pardo.ch/perm/3106/907/OC445660\\_P3106\\_135907.pdf](http://webfiles.pardo.ch/perm/3106/907/OC445660_P3106_135907.pdf) (검색일: 2013.02.15)

- 베를린국제영화제 프레스 센터. 언론 시사 후 기자회견 녹취록(2013.02.14. 11:20)

- 홍상우, 『중앙아시아 영화를 보다』, 경상대 출판부, 2012.

❖ Резюме

Хон Сан У

13-летний школьник Аслан, терзаемый скрытым расстройством личности, стремится к чистоте и совершенству, а также одержим стремлением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происходящие вокруг него события. Обстановка давления, вымогательства и личностной борьбы среди сверстников усиливает состояние Аслана и его конфликт с окружающим миром.

Как уже отмечено во второй главе, данная картина успешно изображает внутреннее состояние героя через внутрикадровый конфликт. В кадре нет музыки, действующее лицо активно не действует, но кадры в начале фильма тесно связываются с кадрам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фильма.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кадры в начале фильма сначала ни кокого значения не имеют, а в конце картины берут огромный смысл.

Режиссер не только изображает само насилие, но и выживание героя, у которого чистый и добрый дух, хотя физически не силен. И он не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границу между злом и добром, он прост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воем опыте в жизни.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в фильме герой выживет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окого насилия в обществе.

В своем полнометражном дебюте режиссер Эмир Байгазин изображает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индивидом и механизмами маргинализации в обществе, раскрывая историю о подростке, который бросает миру опасный вызов, рискуя тем самым разрушить самого себя.

---

Key Words

Harmony Lessons, Emir Baigazin, Kazakhstan Cinema, Central Asian Cinema, The 63th Berlinale

저자: 홍상우

주소: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러시아학과(인문학연구소)

전화: 055-772-1052

E-mail: sawhong@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3년 2월 15일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5일